

# “승객 안전 끝까지 책임지는 선원 되겠다”

국제항해 실습 참가 목포해양대 김지훈씨



지난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중국과 일본으로 국제항해실습을 떠난 목포해양대학교 김지훈(맨 오른쪽)씨가 지난날 17일 중국 상해에서 동료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거친 바다 위 체험 통해 목표의식 뚜렷해져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최민선) 해사 계열 및 해양공학 계열 3학년 250여 명이 지난달 7일부터 22일까지 ‘2014학년도 2학기 국제항해 승선실습’을 다녀왔다. 학생들은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새누리호(4701)와 새유달호(3644)에 각각 승선해 일본과 중국을 순방하며 예비선사관으로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새유달호 학생대표로 항해실습을 다녀온 김지훈(21)씨는 이번 실습이 미래해양전문가로서 목표를 확고히 할 수 있는 ‘특별한 출항’이었다고 말했다. “대학 신입생 때 목포 연안을 2박 3일간 다녀온 걸 제외하면 선박을 타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습생 대부분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출항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한 시간 끝에 닻을 올리고 출발했는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정말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번 항해실습은 선박과 바다에 대해 지난 3년간 공부한 내용을 몸소 보고 느끼며 미래해양인으로서 제 꿈을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 상해와 일본 후쿠오카에 정박한 이들은 외국 항구를 관찰하며 조선업 강국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얻었다. 또한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같은 일

에 종사하는 외국 선원들과 소통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며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역사적 진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 기항지 중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찾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히며 아쉬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중국과 일본에 정박해서 항구 인근을 둘러보며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한 것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장소라 무척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그냥 주어졌 것이 아닌 그분들의 맘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간이 무관심 때문에 점차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국제항해실습을 떠난 학생들은 기항지에 머물기도 했지만 바다 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물에서 과거를 배웠다면 물에서는 미래를 배웠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선박은 바다 위

에서 한없이 초라한 존재였다. 출항 후 대면한 태풍은 육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했다. 학생들은 수없이 뱃멀미를 하면서도 당직 근무를 피할 수 없는 선박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몸으로 익혔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근무 시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선원의 삶이자 자신들의 미래임을 받아들이며 커다란 책임감도 느꼈다. 국제항해실습과 끝맛 같은 휴가를 마친 후 인터뷰에 응한 김지훈 씨는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말하며 잠시 생각을 잠겼다. 앞으로 선박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지난 1일 200일을 맞은 세월호 때문이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세월호 사고 후 인명구조를 위해 새누리호와 새유달호를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목포에서 멀지 않은 진도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와 구조작업을 지켜보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 에 터졌을 수가 없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무책임한 개인’ 때문에 끔찍한 참사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선장을 포함해 선원들이 본인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미래의 선원으로서 남을 탓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선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송원대-공항공사 광주지사 산학 협약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권순규)와 6일 송원대에서 상호간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을 위한 산학협약식을 열었다. <송원대 제공>

## 북구 일곡중앙교회 바자회 수익금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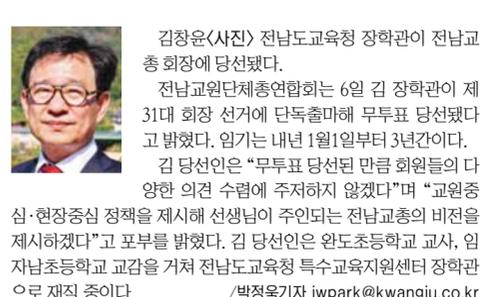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정연수(왼쪽 네번째) 담임목사는 6일 북구청을 방문해 최근 개최한 사랑의 바자회 수익금 2000만원을 송광운 북구청장에 전달했다. <북구청 제공>

## 광주본부세관, 장성서 감 수확 봉사활동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지난 5일 감 수확 작업이 한창인 장성군 농가를 찾아 농촌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직원들은 감 농사 풍년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수확한 감을 현장에서 구매하기도 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 전남교총 회장에 김창윤 도교육청 장학관



김창윤(사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이 전남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김 장학관이 제 31대 회장 선거에 단독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 김 당선인은 “무투표 당선된 만큼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교원중심·현장중심 정책을 제시해 선생님들이 주안되는 전남교총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완도초등학교 교사, 임자남초등학교 교감을 거쳐 전남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장학관으로 재직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방송인 김병조씨 강연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회장 백희숙) 회원 150여 명이 최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방송인 김병조 씨를 초청해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유아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병조 씨는 “일생동안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해도 부족한 것이 선이며, 백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돌아가기 어려운 게 인생이다”며 “어린 학생을 위해 어머니 마음으로 배려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희숙 회장은 “명심보감을 통해 자신보다 학생과 학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다잡는 기회가 됐다”며 “일상에 지친 회원들이 고된 가치를 재발견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시간이었”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한국ABC협회 이성준 신입회장 선출



한국ABC협회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성준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입회장은 한국일보 편집국장, 대표이사, 관훈클럽총무, 언론진흥기금위원장,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송원여상 세무·행정 인력양성사업 성과

대기업 24명 등 112명 취업 확정

송원여상산업고등학교(교장 박근규)는 세무·행정 분야 핵심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관련분야 대기업 (24명)과 중소기업(47명) 등 총 112명(43.7%) 학생의 취업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송원여상은 1팀 1기업 프로젝트와 학년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세무분야 9급 분야에 재학생 취업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규 교장은 “지난 3월 중소기업 세무·행정분야 핵심인력양성

사업에 선정된 후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합심해 이룩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세무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자리 잡기 위해 선 취업, 후 진학을 목표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맞는 교육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여상은 2015년 신입생모집 요강을 통해 세무금융행정 6학급(192명), 세무보건행정 2학급(64명) 등 총 8학급(256명) 신입생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광의료융복합 심포지엄

오늘 전남대병원



전남대학교병원이 7일 오후 2시 ‘2014년 광의료융복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전남대병원 광의료융복합사업단(단장 윤경철 안과 교수·사진) 주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 의대·성균관대 의대·전북대 의대·경북대 의대·카톨릭의대·울산대의대·전남대의대·연세대 공대·전남대 수의대·포항 공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에서 피부부과·안과·영상의학 분야의 국내 유명교수 20여명과 의료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대병원 광의료융복합사업단은 광(光)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진단과 치료기법을 개발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1부는 김윤현 전남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윤경철 안과 교수, 2부는 이지범 전남대병원 피부과 교수·윤경철 안과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이시영·이경숙씨 아들 대근군 황인용(고산건설 대표)·홍해자씨 딸 진희(신한은행)양=9일(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헤리츠웨딩컨벤션 5층 프르메사홀.  
▲기정명·민정씨 차남 대웅(주)웅산)군 이종하·정지선씨 장녀 은숙양=15일(토) 오후 1시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1층 아이비홀 010-9145-9579.

### 중친회

▲광산 이씨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10일(월) 오후 6시 30분 광주 동구 대명가든 062-525-2728.

### 알림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양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엘리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비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가족과 함께 하는 김장김치 맛있게 담그는 법=김옥심 명품김치가 주관하는 김치제원 30일까지 광주시 남구 봉선로

87 학생과 일반인 등 사전신청 후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문의 062-682-5005.

### 모집

▲광주송원초 2015학년도 신입생=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내 출생한 광주시 거주 어린이. 남아 각각 48명 원서교부는 10일부터 27일까지 행정실 및 학교 홈페이지, 접수 및 면접 26~27일 문의 062-360-5594.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위탁!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광주여성하모닉스합창단(지휘 이준) 회원=클래식음악을 좋아하는 광주지역 거주 여성, 매주 월·목요일 오후 2~4시 광주문화예술회관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실 016-604-1918(회장), 010-4416-9883(총무).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 수택, 명당 무료 강의(책자무료제공) 8월(23일) 오후 1시 30분~5시, 광주대 호심관 7층 (707호) 전화 010-3609-8117.  
▲나영일씨 별세 화선·용선·영선·상선·주선·안선·정임·옥단씨 부친상=발인 7일(금) 무등장례식장 103호 062-515-4488.  
▲홍승무씨 별세 경래·광래·상래·성래·경희씨 부친상=발인 7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나영일씨 별세 철춘(목포대)·기찬·해정씨 부친상=발인 7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신중수씨 별세 동희·성희·정희씨 부친상=발인 7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 부음

▲한순자씨 별세 김용수(전남과학대학교)·연준·연숙·정남·정애·연순씨 모친상=발인 8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6분향소 062-231-8906.  
▲강귀례씨 별세 조도현·옥현·덕현·호현·희숙·양희·옥희씨 모친상=발인 8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정일심씨 별세 김경주·점순·점례·점자씨 모친상=발인 8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p><b>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p>	
<p><b>101호 故 최동운 님(남/84세)</b>          子/子婦: 최경환/김 진, 남진우, 남 진/송정애, 남진희/오연옥, 남중수          女/婿: 최나경/전희준 未亡人: 김순애          *발 인: 11월 7일 *장 지: 영락중원 *연락처: 227-4385</p>	<p><b>102호 故류종일 님(남/72세)</b>          子/子婦: 류상희/김미란, 류상명          女/婿: 류원주/이민삼 未亡人: 박경희          *발 인: 11월 7일 *장 지: 영락중원 *연락처: 227-4386</p>
<p><b>201호 故이도임 님(여/92세)</b>          子/子婦: 김희남/이수자, 김희영/남옥순, 김희국/정경희, 김희복/백범일          女/婿: 김경숙/이창환, 김승자/나종준, 김은순/이명규          孫: 김재현, 김재승, 김재복, 김재희, 김재영, 김재진, 김재진          *발 인: 11월 7일 *장 지: 나주 대도선영 *연락처: 227-4381</p>	<p><b>301호 故노상돈 님(남/74세)</b>          子/子婦: 노경창/장미숙, 노경남/김민혜          女/婿: 노미경/이진옥, 노미순/박성태, 노주목/이종희          노정숙/서원란, 노성순/이철희          *발 인: 11월 7일 *장 지: 문반정사 *연락처: 227-4382</p>
<p><b>401호 故이정용 님(남/89세)</b>          子/子婦: 이종삼/정경숙 未亡人: 최소래          女/婿: 이금남/박성남, 이상남/이명주, 이수아/문동식, 이수경/김용태          *발 인: 11월 7일 *장 지: 회춘동선영 *연락처: 227-4383</p>	<p><b>402호 故김기남 님(여/88세)</b>          子/子婦: 홍기만/김춘자          女/婿: 강광진/김중호, 강영진/전성철          *발 인: 11월 7일 *장 지: 영락중원 *연락처: 227-4314</p>
<p><b>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b></p>	